

환경영향평가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

-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

환경부(장관 한화진)는 ‘환경영향평가법’ 등 3개 환경법안이 2월 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.

먼저, ‘환경영향평가법’ 개정으로 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’에 따라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재해복구계획이나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, 행정안전부 장관이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여 환경부 장관과 협의한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속한 복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.

또한,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배출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명시하고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의견수렴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.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하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.

‘하천법’ 개정은 하천관리청*이 여름철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불법 점용으로 인해 하천의 보전·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.

* 환경부장관,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‘먹는물관리법’은 수질 검사기관*에 대한 ‘지정취소’ 행정처분 대상에 ‘거짓으로 검사결과 기록을 작성한 경우’를 추가하고,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지 못하도록 금지하여 먹는물에 대한 수질 관리를 강화했다.

* 먹는물 수질 검사기관, 수처리제 검사기관, 정수기 품질검사기관, 정수기 성능검사기관

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및 사전 안내에 전력을 다할 예정이다.

붙임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. 끝.

담당 부서	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마루 (044-201-6390)
		담당자	사무관	조준행 (044-201-6399)



연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1	환경영향평가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사업자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설명회.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온라인 개최 허용 ○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로 할 수 있도록 함 ○ 특별재난지역의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긴급사업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협의하여 평가 제외 ○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에 온실가스 영향을 고려토록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, 환경영향 및 긴급성 등을 고려한 탄력적인 제도운영으로 실효성 제고 기대 	공포 후 1년 (기본원칙 개정조항은 공포 후 즉시)	국토환경정책과 고대현 과장(7270) 이진희 사무관(7271)
2	하천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하천의 이수·치수·물환경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천구역이 국민 여가활동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하천구역에서의 불법점용 집중 점검을 통한 공공의 이익 보호 기대 	공포 후 6개월	하천계획과 신태상 과장(7701) 전성환 사무관(7713)

연 번	법안명	주요 개정내용	기대효과	시행일	담당자 (연락처: 044-201-****)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하천관리청이 불법점용으로 인해 하천 보전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집중점검 후 조치 의무 신설 			
3	먹는물관리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는물 검사기관의 행정처분 대상 중 “거짓으로 ‘검사성적서’ 발급” 외 “거짓으로 ‘검사결과’ 기록을 작성한 경우” 추가 ○ 먹는물 검사기관이 수탁받은 수질 검사 업무를 재위탁하거나 재위탁 받지 못하도록 금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먹는물 검사기관의 관리감독 강화로 수질, 위생 등의 안전성 확보 기대 	공포 후 1년	토양지하수과 윤은정 과장(7170) 강명화 사무관(7179)